

사회

일부 시설물 '수리중' ... 관람객 작품 훼손
안내원 전문지식 부족·전투기 소음 '짜증'

광엑스포 국제행사 맞나?

'2010 광주 세계 광(光) 엑스포'의 일부 시설물이 시작과 함께 고장나 수리중이거나 관람객들에 의해 작품이 훼손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일부터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엑스포에는 빛 주제 영상관·빛 우주누리관·빛 과학 체험관·빛 산업 기술관 등 9개의 빛 전시관과 빛 분수·영상쇼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지난 4일 현재 8만9천136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그러나 일부 체험관 내 시설이 개막 3일이 지나도록 수리 중인데다, 안내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람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5일 찾은 행사장 내 빛 과학 체험관에 전시된 모스 부호와 자외선 그림자 놀이기구인 시공 필름 부스에는 '수리중'이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빛 예술 존인 시민과미리온에 전시된 18개의 예술 작품 중 고근호의 '즐거운 상상 : 로봇'과 진시영의 '빛에 대한 2010개의 생각' 등의 작품은 이미 훼손돼 있기도 했다.

또 행사장에 수많은 중·고생들이 찾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안내나 설명이 부족한 데다 인근 공군부대에서 이착륙하는 전투기의 소음에 전시물 안내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그늘진 휴식공간이 부족한 점도 관람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 빛과학체험관에 설치된 '모스부호' 기계. 3대 중 2대에는 5일 오전 '수리중' 표지가 붙어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객들의 불편을 샀다.

관람객 김모(15·광주 모중학교 2년)는 "일부 체험시설은 수리중이고, 안내원의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관람객들의 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태양광 홍보관에 비치된 솔라(solar) 충전기와 빛 도서관에 전시된 일부 도서가 도난당했으며, 일부 전시작품은 관람객들의 손자국으로 곳곳에 흩집이 생기는 등 작품 훼손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것.

(재)광주세계광엑스포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작품의 경우 고장이 난 것도 있으며, 해당 작품을 수리할 전문가를 현장에 상주, 제때 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관람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지식경제부가 공동 주최한 '2010 광주 세계 광(光) 엑스포'는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봄은 변덕쟁이

구레 23.3도 초여름 날씨 ... 일교차 17도

농작물 피해 우려

청명(淸明)인 5일 구레군의 낮 최고기온이 23.3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은 오후 한때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반면 건조한 날씨 속에 일교차가 최대 16~17도까지 벌어져 농작물 생육지연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4분 구레군의 낮 최고기온이 23.3도 ▲보성 22.8도 ▲곡성 22.2도 ▲광주 21.9도 ▲순천 21.6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넘어선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이날 광주와 전남의 낮 최고기온은 평년보다는 3.9도 높고 전년보다 3.2도 높았다.

기상청은 구름이 적게 끼어 일사량이 풍부한 데다 따뜻하고 습한 남서 기류가 지속적으로 광주·전남에 유입되면서 높은 기온을 기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침 최저

기온은 구레 7도 ▲보성 7.5도 ▲곡성 7도 ▲광주 8.8도 ▲순천 7도로 일교차가 최대 17도를 육박했다.

앞서 광주는 전날 기온이 2~19.6도를 기록, 일교차가 무려 17.6도까지 벌어지면서 딸기, 수박 등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의 생육지연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김을배 기술지원 과장은 "8~10도 정도의 통상적인 일교차를 넘어서 17도까지 일교차가 벌어질 경우 수박, 딸기 등 과채류 농작물 재배 농가는 생육지연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의 경우는 야간 적정온도 유지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당부했다.

4월 상순 광주·전남의 최저기온 평균은 2~9도, 최고기온 평균은 15~19도. 기상청은 일교차가 큰 가운데 맑고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3분 해질 18시 57분 달 뜨기 01시 25분 달 질기 11시 21분

한식(寒食)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흐리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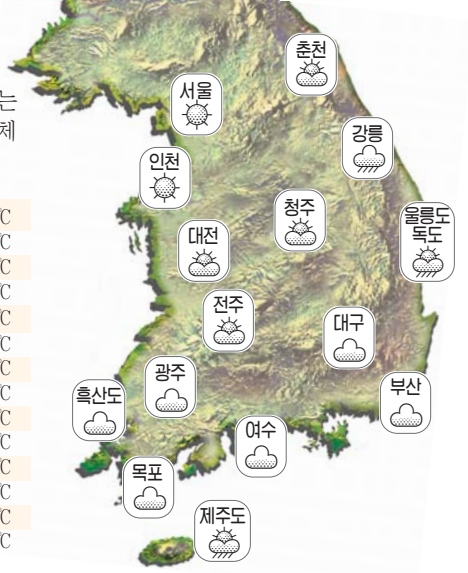


Table with 4 columns: Location, Weather, Temperature, and other details for various Korean cities.

Table with 4 columns: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의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It provides detailed weather and safety information for the morning and afternoon.

Table with 7 columns: Day, Weather, High/Low, and other weather indicators for the week from 7th to 12th.

CJ 태양초·대상 찰고추장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 유명 대기업이 '국산'임을 강조하며 파는 고추장 제품에 사용된 고추양념은 모두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제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는 절반가량이 중국산이며, 여기에 들어간 '햇볕에 말린 고추'인 태양초는 중국산이 국산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상의 '순창 우리쌀 찰고추장'과 CJ제일제당의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은 모두 중국산 고추양념을 사용하고 있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49.5%, 41.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국내 고추장 제품 시장의 91.1%를 차지하고 있다.

대상의 순창 고추장과 CJ의 태양초 고추장에는 고추양념이 5.3% 들어갔으며, 두 회사 모두 고추양념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J제일제당도 고추양념을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상은 순창 고추장이 '우리쌀 100%'로 만들어졌음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정작 핵심 재료인 고추의 경우 중국산 양념 가까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 고추장 제품에 붙여진 성분표기에 따르면 핵심 재료인 고춧가루 함량은 11.3%로 이중 중국산이 5.3%로 나타났다. 즉, 고춧가루에서 차지하는 중국산 고춧가루 비중이 46.9%로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다. CJ 태양초 고추장 역시 고춧가루 함량 11.3% 중에서 중국산 비중이 46.9%에 달했다.

두 회사는 또 자사 제품에 태양초

성분이 들어갔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국산 태양초는 매우 적은 양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순창 우리쌀 찰고추장의 경우 태양초 함량을 8.5%로 표기하고 있으나 여기에 사용된 국산 태양초 함량은 3.2%에 불과했다.

CJ 태양초 고추장 역시 태양초 함량(8.0%) 중에서 국산 태양초는 2.7%에 그친 반면 중국산 태양초는 5.3%나 됐다.

대상과 CJ 측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국산 고추는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데다 공급 물량도 적고 가격도 비싼 편"이라면서 "물량 확보와 균일한 품질, 가격면 등을 고려해 중국산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함평천에 나타난 호사도요 5마리

천연기념물 희귀새 새 번식지일 가능성

천연기념물 제449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희귀새 호사도요(사진)가 나비축제 현장인 함평군 함평읍 함평천에 나타났다.

5일 사단법인 야생동식물보존협회에 따르면 호사도요 5마리가 지

난 1월부터 목격되고 있다. 야생동식물보존협회 최수산 회장은 "지난 해 4월 최초 목격되었고 올 겨울을 난 것으로 보면 새로운 번식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요류 호사도요과의 조류인 호사도요는 주로 중국, 대만, 호주, 아프리카 등에 분포하고는, 연못, 호반가 등에 서식하며, 암컷이 수컷보다 크고 색도 선명한 것이 특

징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충남 천수만에서 번식 동지가 발견돼 주목받았다.

/서부취재본부=황은학 기자hwang@

제 4회 오월 어머니상 공모

오월어머니집 20일까지

(사)오월어머니집은 5월부터 오는 20일까지 제4회 오월 어머니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오월 어머니상'은 1980년 5월을 전후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숨은 시민을 찾아 노고와 공로를 위로하고 5월 정신의 참뜻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

1980년 5월이나 1987년 6월항쟁 등 한국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단체 가능)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사)오월어머니집은 공모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 중 3인을 선정, 5월8일 시상식을 갖고 수상자에게는 시상금 100만 원을 수여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EBS 웹사이트 북물 오픈

EBS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교재를 살 수 있도록 EBS 웹사이트에 북물(book.ebs.co.kr)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온라인 portal을 통해 공급되는 교재는 EBS가 직접 출판하는 초중고교 교재이며, 5월부터는 '방학생활' 'FM외국어' 등 EBS가 대행 출판하는 서적도 판매한다.

또 수요가 많지 않아 일반 서점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EBS의 과거 교재도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EBS 수능교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70% 연계해 출제하기로 한 데 이어 EBS가 직접 교재 판매에 나서기로 하자 일각에선 '책장사로 이익을 독점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BS는 1~3월 출고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15~20%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the 49th Jeollanamdo Provincial Sports Meeting, featuring a runner and various sports-related graphics. Text includes '제49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and '2010. 4. 27 화 ~ 30 금'.